

# “소분과 활성화해 국내외 유통시장 공략하겠다”

## 최병오 의산협 회장, 2015 정기총회서 밝혀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가 회원사들 활로를 열기 위해 국내외 유통시장 개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산협은 특이한 · 중 FTA 시대를 맞아 우리 브랜드들이 중국 유통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방법도 모색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병오 한국 의류산업협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2015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문 분야별 소분과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통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최 회장 답변은 정기총회 중 회원사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

서 나왔다.

이날 서상률 동주모드 대표는 “유니클로나 자라, H&M 같은 브랜드들이 국내 백화점과 유통시장을 장악했다”며 “(의산협내) 남·여성복, 아동복 등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의산협은 후즈빅스트만 1년에 2번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마켓에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전시회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 회장은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의산협 회장(사진 중앙)이 의류산업 유공자 포상자와 포즈를 취했다.

도 유통과 제조를 함께 하고 있는데 백화점들이 온갖 요구를 다 하고 있어 소분과를 통한 정보교류가 중요해졌다”며 “내부 토론을 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중

국인을 포함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이들을 고객으로 유인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그는 “중국 유통 백화점과 물이 8000개나 된다. 이들 물

은 백화점과 달리 우리 브랜드를 많이 찾는다”며 “소규모 브랜드가 들어갈 틈새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의류패션브랜드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협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의산협은 국내 섬유패션단체 중 유일하게 중국 상해와 북경에 대표처를 두고 있어 효과적인 대안마련이 기대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디에에프(대표 최동남) 패션랜드(대표 최익) 화인레나운(회장 박윤규) 등 9개 회사 기업인들이 의류산업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아울러 15명의 임직원 포상도 함께 수여됐다.

/정기창 기자 kcjung100@ktnews.com

## “자연에 가치를 둔 지속가능한 삶”

# 빌라 셀룰로스 佛파리 PV에서 호평



인도의 글로벌 섬유소재 기업인 빌라 셀룰로스(Birla Cellulose, 이하 빌라)는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레이메르 비종에서 자연에 초점을 맞춘 2016년 S/S 컬렉션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추럴 라이프를 강조한 ‘Forager’ & ‘Discipline’를 주제로 다양한 소재와 혼방된 모달 소재를 선보였다.

‘Forager’ 컬렉션은 ‘간결한 것이 더 아름답다(less is more)’는 컨셉으로 자연에 가치를 둔 지

속 가능한 삶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빌라 모달(Birla modal)과 아이코(Amicor)를 혼방한 니트 의류는 기능성과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항균성을 갖는다. 쿨맥스(Coolmax)와 만나면 남·여성복 모두에 잘 어울리는 운동복에 제격이다. 회사측은 “빌라 모달은 엄선된 펄프로 만들어져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소재”라고 밝혔다.

‘Discipline’ 컬렉션은 소비자들이 ‘럭셔리해질 올바른 권리’를 추구한다. 천연염색과 수공예 프린팅을 사용해 환경 친화적 생

산과 지속가능성을 선보였다.

빌라 셀룰로스는 유럽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인 소비자 리서치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디자인 컨설턴트인 샌디 맥레난(Sandy McLennan), 글로벌 패션 트렌드 정보 회사인 WGSN 등과 일하며 남들이 가지 않은 영역을 개척해 오고 있다.

빌라 셀룰로스는 연 매출이 400억불에 이르는 인도의 글로벌 기업인 아디티아 빌라 그룹(Aditiya Birla Group)의 umbrella brand로 빌라 모달(Modal), 빌라 엑셀(Excel), 빌라 스펀쉐이드(Spunshade) 등을 하위 브랜드로 두고 있다. 인도에 4곳, 중국과 대만,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두고 비스코스 스테이플 파이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기창 기자 kcjung100@ktnews.com

## “성장 위한 30년, 도약 향한 30년”

### 2020년 매출 1조...기업공개 시사

#### 팬코 창립 30년사 발간

팬코는 작년 12월5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최근 ‘창립 30년사’ ‘사진’을 발간했다. 팬코의 경영 성과와 기업문화 등을 알려 과거를 성찰하고 앞으로 30년을 조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등을 넘어 일류를 향해 전진하는 기업 정신과 미래를 위한 경영 문화, 아울러 30주년을 맞은 임직원들의 각오도 함께 실렸다.

최영주 회장은 발간사에서 “과거 30년 역사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역사였다면 다가올

30년 역사는 더 큰 도약의 꿈을 이루는 역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사(社史)에 실린 인터뷰에서 “2020년에는 외형이 조(兆) 단위에 이를 것”이

라며 이 때 향후 100년 기반 마련을 위한 기업 공개도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정기창 기자 kcjung100@ktnews.com



## 섬산련 장학재단, 53명에 장학금

### 연내 30명 추가 지원

한국섬유산업협회 장학재단(이사장 성기학)은 지난 13일 섬유센터에서 ‘2015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벤텍스, 태평직물, 팬코, 정현재단, KOTII, KATRI, FITI시험연구원, 산찬섬유 등 기존 장학금에 섬산련이 1억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장학기금은 총 3억600만원으로 늘었으며 약 80여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급범위를 확대, 해외 유학생과 업계 현장 근로자 자녀로 수혜 계층을 늘렸다.



섬산련 장학재단은 53명을 우선 지원하고 연내에 글로벌 유학생과 현장 근로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3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창 기자 kcjung100@ktnews.com

## 韓섬유소재 기업 PV서 1억불 상담

### 참여업체 늘고 해외 바이어 관심 높아져

한국 기업들이 2월 10일부터 열린 프레이메르 비종(PV)에서 1억불이 넘는 상담실적을 올리고 6400만불의 현장 계약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 F/W와 비교해 참가 업체가 6개사 늘고 특히 상담하는 해외 바이어가 크게 증가했다.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광역시 지원을 받아 한국수출입조합이 주관한 이번 PV에는 노바텍스와 에프티텍스가 신규업체로 자격을 얻어 참가했다.

코리아실크로드, 덕성피앤티 등 30개사는 한국관에 참여해 크리에이티브한 기능성과

디자인을 포인트로 시장을 공략했다. 조합측은 “첫날부터 많은 바이어들이 홍보관과 한국업체를 방문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2월 10~12일까지 3일간 열린 PV에는 세계 50여개국에서 총 1793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5만8443명의 글로벌 바이어들이 참관했다. 섬유조는 올 F/W에도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할 예정이다.

/정기창 기자 kcjung100@ktnews.com